인쇄하기

2024 부산 국제금융포럼 개최, 세계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다져

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금융포럼 개최
부산일보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공동 주최
금융 전문가 · 시민 등 200명이 참석

입력 : 2024.06.26 15:09

지난 25일(월)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오후 2시에 2024년 부산국제금융포럼이 개최되었다. [사진출처 = 뉴스투데이 DB]

[부산 / 뉴스투데이=하예지 기자] 지난 25일 오후 2시에 부산 벡스코에서 2024 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하였다. 부산일보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공동 주최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금융전문가·정치권·공기업관계자·시민 등 200명이 참석하여 부산이 세계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.

2024 부산 국제금융포럼은 지난 20일 부산이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열린 금융 관련 공론의 장이었다. 이번 포럼은,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부산이 앞으로 국제금융도시중심지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.

이날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은 " 금융은 부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미래 희망이자 젖줄이다"며 "부산이 국제 금융도시로 경쟁력을 갖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해야 한다 2025년에도 부산국제금융포럼이 열리길 바란다"고 말했다.

2024 부산국제금융포럼에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. [사진출처 = 뉴스투데이 DB]

[하예지 기자 기자 hoh_012@naver.com]

〈저작권자ⓒ뉴스투데이 & www.news2day.co.kr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 〉